

광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선포

광역시 최초... 전국 유일 광역·기초 인증
선도도시 강화 아동권리실현 메시지 전파
교육청·경찰과 협력 53개 중점과제 이행

광주시가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 선도도시로 새롭게 출발한다.

광주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광주가 광역시 중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한 성과를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은 광주시 교육감, 최지현·이명배 광주시의원, 김영근 광주경찰청 경무관,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 윤부즈퍼슨, 아동·청소년 및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시청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축하 공연(난타·합창) ▲아동친화도시 추진영상 ▲아동권리헌장 낭독 ▲상위인증 선포 및 인증서·현판 전달 ▲인증 퍼포먼스 '매직트리' ▲아동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선포식이 31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강기정 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화정책 소개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아동권리헌장 낭독에는 영·유아부터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 등 다양성·포용성을 반영한 8명이 참여해 아동 권리와 어른들의 책무에 대한 의미를 깊게 전달했다.

인증 퍼포먼스 '매직트리(Magic Tree)'는 겁

은 물이 정화돼 깨끗한 물로 바뀌고, 그 물을 나무에 쥐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 광주시, 교육청, 경찰청이 협력해 아동 권리를 함께 키워가는 도시의 미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광주는 이번 인증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와 5개 자치구 전 지역 인증을 달성한 도시가 됐으며, 광역·기초 간 협력형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아동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아동·청소년의회를 분리해 아동 참여를 확대했고 광역 최초로 청소년의회를 직선제로 구성했으며, 이들이 제안한 정책 69건 중 68%를 시장에 반영했다.

아동참여예산제 17건도 실제 사업화 했으며 아동권리감사 양성, 아동권리교육 콘텐츠 개발, 손자녀 돌봄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형 G패스 교통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추진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저출생 대응과 양육친화환경 조성 노력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시민의 권리가 모든 시민에게 존중받고 실현되는 기회도시 광주' 비전을 구체화하고 광주시·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4년간 53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아동친화정책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상위인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일 이 빛나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수희 기자

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18건 선정

'찾아가는 장애인건강지킴이' 최우수

'전국 최초 강진 반값 여행'도 영예

전남도가 본청과 시·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찾아가는 장애인건강지킴이', '강진 반값 여행' 등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심사를 거친 뒤 도 부문 7개 부서와 시·군·공공기관 부문 13개 기관이 참여한 발표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발표 심사에선 도민 제과, 적극성, 중요도, 확산가능성 등 4개 항목을 중점 평가했다.

평가 결과, 도 부문은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한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의 '찾아가는 장애인건강지킴이' 사례가, 시·군·공공기관 부문은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지역 소비를 촉진한 강진군의 '전국 최초 강진 반값 여행' 사례가 각각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여수사건 유적지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안내 서비스 개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품고 재난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하다' 사례 등 총 18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다. /기수희 기자

도 부문 수상 부서에는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포상금과 상장을, 시·군·공공기관 부문 수상 기관에는 전남지사 기관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농기센터, 논콩 재배기술 교육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31일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교육장에서 논콩 재배 농가를 위한 '논콩 품목기술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간 생육 관리와 주요 해충 방제법을 중심으로 논콩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실제 재배 사례를 바탕으로 농가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 기술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여름철 생육 중기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법을 심도있게 다뤘다.

논콩은 초기 활착 후 중간 생육기에 웃거름 주기, 적정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웃거름은 콩의 분지 발달과 꼬투리 착과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시기와 양을 잘못 맞추면 도복 위험이나 비효율적인 생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중간 생육기 웃거름 주는 적정 시기와 분시량,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기수희 기자

'전남이라 전부 인생샷' 공모전 '눈길'

도, 이달말까지 '전남여행 포토 챌린지'

선정 작품 전남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

전남도는 31일 '여행 인플루언서 채널' '여행에 미치다'와 협업해 전남여행 포토 챌린지 '전남이라 전부 인생샷'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47만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채널을 기반으로 공모전을 열어 SNS를 즐기는 20~30대 MZ세대, 국내 여행 인플루언서 사진작가 등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31일까지 진행되

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을 여행하며 촬영한 사진이나, 제시한 지정 자세로 촬영한 사진을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은 전남을 여행하며 촬영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명소, 특색있는 먹거리, 체험활동 등을 담은 사진을 출품함으로써 전남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홍보 매개체 역할을 하고 전남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장이 될 전망이다. 선정된 고품질 사진 콘텐츠는 전남도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도 심사배점표와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참가자의 개인 정보를 배제한 1·2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시상품을 증정한다. 1등 무선 이어폰, 2등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입장권과 목포 숙박권, 3등 즉석 사진기, 4등 커피전문점 e카드 등이다.

모기업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여행 포토 챌린지 이벤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 풍부한 사진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많은 관광객이 참여해 전남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전 참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 '여행에 미치다'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정 기자

생산·출하까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

도, 단계별 잔류농약검사 소비자 신뢰 ↑

전남도는 31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별로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50% 이상을 생산하는 최대 공급 기지로서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2·3중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작물 재배 전부터 토양, 수질, 잔류농약검사를, 2단계 재배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업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도록 병행해 교육할 예정이다. 3단계 출하 전 공공비축 친환경 농산물 출하농가 잔류농약검사 의무화 등 잔류농약검사 확대를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만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문자발송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농업인 2만1천명을 대상으로 병행해 공동방제 사전신고제, 유기농업자재 사용 등 인증 준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한다. /양시원 기자

2025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광역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모집인원 수시 모집 (예산범위내)	모집기간 2025. 7. 21. ~ 11. 30.	돌봄수당 월20만원 (1일 4시간 이상 돌봄 원칙)
신청자격 1. 손자녀 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및 4촌이내 친인척 2.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두자녀 이상인 세대 3.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실제 광주 거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 평균 150%이하인 세대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미취업자로 구분. 단, 출산후가 기간은 가능 5. 서비스 이용기간: 최대 3년 ※ 개월 수가 아닌 연단위로 산정함	신청방법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방문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24, 여성단체회관 3층 ● 전화 062-363-9401~2 ● 팩스 062-363-9403 ● 이메일 cow9401@hanmail.net	문의처 (사)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전화 062-363-9401~2 ● 홈페이지 http://www.gcow.or.kr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BKHCj?from=qr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서약서(광주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www.gcow.or.kr) 2.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모 각각 제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4. 소득증빙자료(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중 택1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의 경우)		